

# 한국문학번역원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

'21. 6. 30.(수) / 정책기획팀

## □ 개요

- (일시) 2021. 6. 23.(수) 16:00~17:00
- (장소) 한국문학번역원 4층 대회의실
- (참석자) 총 8인
  - 내부위원: 곽효환(원장), 박경희(경영기획본부장), 유영선(근로자위원장)
  - 외부위원: 장해니(번역가/번역아카데미 교수), 이현주(언론인권센터 이사), 함용일(노무법인 위맥 대표노무사)
  - 간사 및 업무담당자: 박지원(정책기획팀장), 채혜진(정책기획팀 대리)
- (안건)
  - 보고사항: 기관 일반현황, 인권경영 추진경과, 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획
  - 심의안건: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(안)

## □ 주요 내용

- (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)
  - (계획안 심의 결과) 기관 특성에 맞춰 체크리스트 등을 수정·보완하고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재심의(2021년 3분기 개최)

### [외부위원 제언]

- 기관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자유롭게 삭제 및 추가 가능
  - 문화예술 유관기관 체크리스트 참조, 기관 실정과 중점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수정 필요
  - 가족친화제도 지표는 반드시 추가, 필요시 다문화 관련 지표 추가 검토
  - 지표를 설계할 때 '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'보다는 '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'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
- 답변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수정하고 점수 척도를 설정하면 연도별 평가결과 비교가 용이함
  - '예/아니오/보완필요/정보없음/해당없음' → '매우 그렇다/그렇다/보통이다/별로 그렇지 않다/전혀 그렇지 않다'(5점~1점)
- 문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칸을 추가하면 개선과제 효과적 도출 가능
- 기관운영 평가는 전 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
  - 팀장만 참여할 경우 결과 편향될 가능성이 높음
- 주요사업 평가에서 '인권경영의 확대' 4개 지표 평가자는 외부 고객으로 설정해야 함

○ (인권경영 추진과제)

- (조직문화 개선)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가해자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(처벌규정이 없어 사후조치 어려움), 예방 차원에서 조직문화 및 구성원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함
- (구제제도 정비) 기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지침을 통합해서 정비하고, 일반 고충·성희롱 고충·인권 침해 사건 처리 절차도 기관 실정에 맞춰 개편\*할 필요가 있음
  - \* 기존 사건 접수·처리 결과,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/피신고인 인권이 잘 보호되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(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)
- (단계적 인권경영 실행) 직원을 위한 인권경영을 먼저 추진하고 외부 고객까지 포괄하는 인권경영 실현으로 고도화

○ (기타 의견)

-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직원 의무교육에 인종차별 예방교육 추가 및 번역아카데미 교수진 대상 인권교육 실시 필요
-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 및 외부 관계자 신뢰도 제고

□ [21년] 하반기 인권경영 추진계획

○ (웹사이트 홍보 강화)

- (일정) '21. 7.
- (내용) 대표 웹사이트에 인권·윤리경영 추진 체계, 연간 계획 및 추진실적 등 자료 보완

○ (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)

- (일정) '21. 8.
- (심의안건)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(안), 인권보호 통합 지침(안)

○ (임직원 인권교육) '21. 10.

○ (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) '21. 10. ~ 11.

○ (2022년 인권경영계획 수립) '21. 12.